



진각종 추기 스승강공 현장

■ 진각종 교유용어

강도(講度) 대중이 한자리에서 불공을 하여 자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해탈되고 인연 있는 이들이 제도 되어 모두가 성불에 이르고자 서원하는 의식.

삼밀관행 몸과 입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부처님과 상응하는 법으로써, 몸으로 인계를 결하고(신밀) 입으로 진언을 연송하며(구밀) 마음으로 부처님을 관하는(의밀) 수행.

수계관정 밀교의 수계 과정에서 행하는 관정으로, 수행자가 인격을 완성하여 살아가고자 할때 이를 인가하고 허락 받는 약속의 장으로 상징적 의미에서 금강의 서수(誓水)를 이마에 뿌려주는 의식.

신교도 불법을 인연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로서 함께 수행하고 법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따뜻하게 충고하여 주는 사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남자 신교도는 각자, 여자 신교도는 보살.

심인 불심인의 약칭으로 진각종 법통승수의 상징이다.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처님 자내증의 심지를 말한다.

오대서원 금강계 밀교의 독특한 5종의 서원으로 대일여래의 분원이며 모든 불보살의 총원이 되는 것.

절량리사 밤을 지을 때마다 한 시구에 한 술씩 퍼서 부처님 전에 먼저 공양하는 진각종의 예경법.

현공불사 심인당이나 각종 건물을 신축하여 법계에 현공하는 불사의식. 착공식은 지진불사로 불린다.

◀진각색 법의를 걸친 진각종의 200여 스승들의 금강지권의 인계를 결한 모습에서 비장함이 묻어난다.

진각색 법의 200여 스승 일제히 금강지권



지위·성별 불문 한자리서 교법·사상논의 불상없는 사찰, 자성일 등 기존종단과 차별 의원 선출시 동점자 합의 통한 당선자 결정

10월 21일,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자리한 진각종 총인원(總印院)에 진각종의 성직자인 스승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일년에 두 번 열리는 스승강공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를 비롯한 전국에서 총인원을 찾은 것이다.

진각종의 스승 강공은 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비롯한 교법과 교리를 연찬하고, 새로운 교화방편, 종무행정과 심인당(사원) 운영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는 자리다. 교법 논쟁과 토론, 전법관정, 스승총회,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추모다례), 중앙총의회 등으로 구성되면서도 교법 논쟁과 토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회당 대종사의 부도탑을 본존으로 저멸보궁의 형태를 취한 무진 설법전에서 예를 올리는 의식인 예참시간, 진각색 법의를 입고 일제히 금강지권(밀교의 결인법 중 하나)을 한 200여 스승의 표정에서 강공을 맞는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매년 두 번씩 여는 의례적인 자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강공은 지위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에서 교법과 사상을 논하는 진각종의 아름다운 전통이다. 또한 '신생종단' '밀교'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한국불교 중심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스승의 결연한 의지를 모으는 특별한 모임이다. 진각종이 1947년 개창한 이래 한국불교 4대 종단에 오를 만큼 위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다짐과 성찰을 통해 모든 스승들이 함께 일구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진각종의 의식과 의례 등은 불자들에게 여전히 생소하다. 스승으로 불리는 유발 성직자를 비롯해 심인당으로 불리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사찰, 승복과 다른 복식, 매월 월초에 올리는 불공 등 기존 종단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밀교 중흥과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 구현을 이념으로 창종 당시부터 기존 종단과 차별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21일 오후 1시부터 22일 오전까지 교법 논쟁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단에 밝은 스승이 강단에 올라 강의를 하고, 이어 정사(자사 스승)와 전수(여자 스승) 구분 없이 자신의 수행과 경현에 비추어 토론을 벌이는 현장의 열기는 갑자기 몰아친 추위를 몰아낼 만큼 후끈 달아올랐다.

3명의 중앙총의회 의원 선출을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린 스승총회는 진각종의 의사결정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자리였다. 종헌준법에 규정된 종의회 의원의 자격을 갖춘 20명의 스승이 후보가 됐다. 재적 스승 194명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현직 스승 173명은 후보 가운데 3표를 행사했다.

전체 37명의 종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라면 37명을 찍을 수 있다. 다득표자가 종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지만,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재투표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어찌 보면 번거로워 보이는 진각종의 투표법은 모든 스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민주적인 방식인 셈이다.

스승총회를 마치고 전체 스승들은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바치고 열반에 든 진각종의 선대스승을 추모하는 추념불사장소인 무진설법전으로 모여들었다. 해일 총인의 점축과 훈향(현향)을 시작으로 호암 통리원장이 70여위의 선대스승을 봉창했다. 봉창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호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선대스승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교화와 수행에 전념하는 성직자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추념불사에 참석한 전체 스승들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중생제도의 죽비를 들고 불철주야 용맹정진의 공력으로 일선 교화에 나섰던 선대스승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담고 자신에게 주어진 교화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해일 총인이 일제 대종사에게 전법관정을 행하는 모습(위)과 선대열반스승 추념불사의 육법공양(의식)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학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